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남도지회에 방역물품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 지원은 지난 1월 7일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에 방역복, 장갑,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AI 조기 종식을 위해 긴급하게 일부 방역 물품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과 함께 광주전남 지원은 향후 전남 지역 460호 농가 전체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AI 발생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승중원)은 지난해 8월부터 매년 가금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역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다솔과 공동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발생대비 위기대응 매뉴얼'은 AI 발생 시 이력정보와 GIS 정보 기반의 정확한 감염원 확인과 신속한 이동경로 추적과 회수, 적시에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전염원의 사육, 도축, 이동경로를 조기에 일괄 추적할 수 있는 방역체계다. 또한 가금 및 소, 돼지를 포함한 전체 축산물 사육현황까지 범위를 확대해 AI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방역대별 사육현황, 이동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도 특징이다. 축평원 광주전남지원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효율적인 AI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해 이 매뉴얼을 다솔에 적용해 위기대응 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승중원 축평원 광주전남지원장은 "본격적인 철새 국내 유입이 시작되면서 최근 AI 항원이 철새 도래지에서 발견되는 등 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가금업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